

인천만국공원 내 근대건축물 복원사업연구

A Study about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Modern Building in Incheon Public Garden(Jayu Park)

손 장 원*
Shon, Jang-won

Abstract

Incheon City move onward re-modeling about Jayu Park(public park) in Incheon city. The building restoration must equip all data which are necessary to a restoration and it must be advanced and, currently the project which is advanced is not like that. The place objective which evaluates the restoration possibility of the modern time building where this dissertation is included consequently in project contents it is letting. The evaluation result data is not secured not to be, the restoration is impossible. Also simplicity reappearance of the building where the function disappears without being true feelings characteristic is there is not a possibility of having a construction value. The modern time building restoration which Incheon City it propels consequently it is right to be discontinued.

키워드 : 근대건축물, 복원, 만국공원, 인천시

Keywords : Modern Building, Restoration, Public park, Incheon city

1. 서 론

인천시는 현 자유공원을 리모델링하여 구도심재생, 서구의 근대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로서 역할을 했던 역사적 특성을 살려 월미관광특구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을 위해 인천시는 '구도심 역사문화자원 및 활성화 관련 사업 조사·연구'(2002년, 인천발전연구원), '각국공원(현자유공원)창조적 복원사업타당성 검토'(2005년, 인천학연구원)의 용역을 실시했으며, 사업비는 약 280억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명칭은 공원복원사업이지만, 공원조성에 관련된 비용은 전체사업비의 10% 정도이며, 나머지 비용은 멸실된 근대건축물의 복원사업비이다. 즉 사업명칭과 달리 주 사업내용은 근대 건축물복원이다. 복원대상으로 선정된 근대건축물은 총 5개로 근대기 인천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지만, 설계도면 등 복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확보되어있지 않고 단지 건축물 외부사진이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동안 지역시민단체는 물론 도쿄모모코리아에서도 진정성을 상실한 건축물 복원의 부당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만국공원 근대건축물 복원사업에 대한 논리적 접근을 통해 복원가능성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근대건축물의 활용과 보존을 넘어 건축물의 공간적, 물리적

복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시대적 특성을 감안하여 복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근대건축물 복원기준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근대건축물에 대한 인천의 지역적 특성 및 복원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전개하며, 복원대상 건축물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 통해 복원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전개한다.

2. 근대건축물에 대한 인천의 지역적 특성

2.1 인천지역 근대건축물

개항이후 인천에 도착한 일본인, 중국인 및 유럽과 미국인들은 당시 자국에서 유행하던 스타일의 건축물을 그대로 인천에 세웠다. 즉 일본인은 일본식과 일본 의양풍¹⁾ 건축물을, 중국인은 중국식 건축물을, 유럽인과 미국인은 서양식 건축물을 세웠다. 이는 서구유럽과 우리보다 앞서 개항한 일본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상징물로 건축적 측면에서의 예술적 가치도 그리 높지 않다. 즉 이들이 세운 건축물은 자국의 것을 그대로 인천에 옮겨놓은 것이다. 여기서 지역성이나 우리의 문화적 특성을 찾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물론 이러한 건축물의 영향으로 서울에는 서양식 궁궐, 관공서와 개인주택 등이, 인천에서는 인천

* 정희원, 계능대학 인테리어디자인과 조교수, 공학박사

1) 의양풍(依洋風)이란 말은 일본이 서양의 건축양식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건축양식인 일본식(和風;和風)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우리나라가 서양의 건축양식을 받아들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세관, 인천전환국, 애관, 서상집 주택 등이 서양식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이는 단지 외래의 건축양식을 도입한 것으로 창조적 건축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천'이라는 장소성을 고려하여 건축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인천의 근대건축물은 개별 건축물로서의 가치보다 이러한 건축물이 모여 형성된 장소성에 그 가치가 있다. 이러한 장소성은 중구청 근처를 거닐면 당연히 생기는 느낌으로 하이데거나 노버그-슐츠의 장소개념을 적용할 필요조차 없다. 근대건축물과 관련된 사업은 이러한 장소적 가치를 간직하고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장소성을 훼손할 수 있다.

2.2 지역적 특성

여타 도시는 최근여야 근대건축물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1950년대 말에 이미 인천지역 근대건축물을 집약한 '개항과 양관역정'이 발간된 인천은 근대건축에 관한 한 비교우위에 있다. 이후에도 여러 편의 조사보고서와 논문이 발표되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근대건축물을 보존·활용하려는 모색도 있어 왔다. 이러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인천시도 지역 내 근대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03년부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시행 중이고 최근에는 멸실된 근대건축물 복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시의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면, 중구청 일대는 근대기의 모습으로 변모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이 과연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이곳에 세워졌던 건축물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앞선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추진되는 멸실된 건축물의 복원사업은 더욱 그러하다. 건축물 복원은 그저 그런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상징을 만드는 작업이다.

3. 건축물의 복원과 만국공원 복원의 기본방향

3.1 건축물의 복원

건축물의 복원은 중요한 건축물이 소멸된 경우에 원래의 모습 그대로 되살리는 것으로 보존행위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과거의 문화적 소산을 현존하는 진품으로 생생하게 감상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복원은 최초에 만들어진 상태로 복구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원형에 접근할 수 없다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즉 건축물에 있어서 '복원'은 원래 상태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대에 사용되었던 건축기술과 재료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 세워진 근대건축물은 외세에 의해 강제로 이입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앞서 근대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의 경우에는 근대건축에 대한 주체적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근대건축물을 세울 수 있어 근대건축물에 대한 시각이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일본에서 멸실된 근대건축물을 복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²⁾

3.2 만국공원 복원의 기본방향

만국공원 복원은 인천의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다는 관점에서 인천의 랜드마크역할을 했던 제임스 존스톤 별장 복원을 주사업내용으로 하며, 복원비용으로 110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인천학 연구원이 실시한 '각국공원(현자유공원)창조적 복원사업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복원대상건축물은 역사성, 건축적 가치, 관광자원의 측면에서 선정하고 복원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진자료와 도면의 확보여부에 따라 5개의 건축물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복원 후 존스톤 별장은 개항문화자료관, 세창양행 사택은 근대상업자료관, 영국영사관은 한-영외교사자료관, 알레별장은 한-미외교사자료관, 러시아영사관은 한-러외교사자료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용역보고서에는 표 2)에 제시한 건축물을 도출하기 위해 외관사진자료의 수와 도면을 근거로 복원가능성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사진자료의 수는 2~15개 정도이며, 제시한 도면은 스케일이 맞지 않는 단순히 내부공간의 배치상태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인천영사관의 경우 학술적 정의조차 불분명한 '임의복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복원의 근본적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복원이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표 1. 복원대상 건축물

건축물	의의	복원장소	관저
존스톤별장	당시의 랜드마크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터	원래의 장소, 공원의 상징적 위치
세창양행 사택	최초의 서구식주거시설	화단	원래의 장소, 존스톤별장과 균형유지
영국 인천영사관	해관의 주도적 역할	터줏골매점	부지규모의 적합성과 주변경관과의 일체성
알레별장	미국공사 별장	새우리 부지	규모의 적합성
러시아 인천 영사관	러일전쟁관련	공원편입예정 사유지	규모의 적합성, 관람객동선의 효율성

(자료) 인천학연구원, 각국공원창조적복원사업검토, p.94

4. 복원대상 건축물의 특성과 복원가능성 고찰

4.1 제임스 존스톤(James Johnston) 별장

1) 연혁

1903년에 착공하여 1905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제임스 존스톤의 여름별장으로 설계는 폴란드인인 쿠르트 로트

2) 최선주, 일본의 근대건축물 보전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14

게겔(Curt Rothkegel)³⁾이, 건축공사는 중국인 이경통(李慶通)이 담당했다. 1919년까지 존스톤의 소유였으나 그가 죽은 뒤 발터가 소유했다. 제1차 대전 이후엔 히로자와, 야마쥬(山十),⁴⁾ 가다구라에게 차례로 매도되었다. 1936년 2월 21일에 인천부가 매입해 '서공원 회관'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가 '인천각'⁵⁾으로 개칭돼 1936년 7월 26일부터 고급 여관 겸 요정으로 사용되었다. 이때의 주요시설은 1층에 대식당, 중식당, 소식당, 2층에는 6개의 객실이 있었으며, 그 이름은 일본식 이름(松の間, 竹の間 등)으로 되어 있었다.⁶⁾ 해방 이후 미군장교 기숙사로 쓰이다가 1950년부터 소실되었다. 복성동 3가 2번지에 있었던 이 건물 터에는 현재 1983년에 세워진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이 들어서 있다.

2) 건축적 특성

붉은 기와와 다각형 지붕, 굴곡 처리된 벽면, 창호의 변화 등이 이 건물의 특징이다. 건물규모는 4층 건물로 1층은 석조이며, 2층 이상은 벽돌을 쌓아 올린 건물이다.⁷⁾ 연면적이 1,871㎡(지하1층 373.6㎡, 지상1층 420.2㎡, 2층 356.6㎡, 3층 299.9㎡, 4층 17.2㎡)에 달하는 별장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건축물이었다. 1층에는 홀, 응접실, 식당, 오락실 등이 있었으며, 침실은 주로 2층에 배치하였다.⁸⁾ 내·외부공간에는 조각품을 설치했는데, 이 조각품들은 상하이에서 10여명의 조각가를 불러 완성하였다고 한다. 또한 건축 당시에는 인천에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정원에 발전소를 설치하기도 했다.⁹⁾ 지붕을 덮은 붉은색 타일 기와는 중국 칭따오(靑島)에서 수입한 것이며 전기관련 장치물과 전등은 세창양행을 통해 독일에서 수입하였고 가구는 영국 메이플상사로부터 구입하였다.¹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엽서를 보면 건축당시부터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별장 주위에는 철조망 울타리와 철문이 설치되었던 건물이었다. 즉 인천각은 공원시설이 아니라

공원이라는 공공공간의 일부에 들어선 시설임에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제한되었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3) 복원가능성

건축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스케일이 없는 도면과 내외부 사진 15매로 다른 건축물에 비해 비교적 사진자료는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 건축물은 모형작업 시 전체의 외형을 추정할 수 없어 뒷부분은 작업이 불가능했던 건물이다. 또한 내부공간 사진의 경우 인천각으로 사용될 당시의 일본식 도꼬노마 등의 사진이 대부분으로 건립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개조된 이후의 이미지이므로 이 또한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없다. 즉 건축물 외관에 대한 일부 추정은 가능하나, 복원이 불가능한 건축물이다.

4.2 세창양행 사택

1) 연혁

세창양행의 경영자인 카를 발터의 소유로 1890년¹¹⁾에 주택으로 신축되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독일패망으로 적산이 되었다. 인천부가 1922년 경매로 구입하여 9월 1일에 인천부립도서관을 개관하였다.¹²⁾ 1916년경부터 일본인들은 이 건물을 '청광각(淸光閣)'으로 부르기도 했다.¹³⁾ 1941년까지 부립도서관으로 사용되었다. 도서관이 신흥동(현, 중구보건소 터)으로 이전한 뒤에는 향토관으로 사용되었다. 1946년 4월 1일에는 이 건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이 개관하여 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인천상륙작전 중 소실되었다.¹⁴⁾ 한편, 이곳에서는 독일황제의 동생인 하인리히가 1899년 6월 19일 인천에 왔을 때 왕자를 위한 파티가 열렸다.¹⁵⁾ 또한 일본 쇼와(昭和)태자가 인천을 방문했을 때는 일루미네이션을 설치하여¹⁶⁾ 그의 방문을 환영하기도 했다.

2) 건축적 특성

송학동 1가 1번지에 있었던 건물로 현재의 위치는 자유공원 상부 맥아더 동상 앞(동상을 바라보면서 우측)이다. 주 건물은 붉은 색 기와지붕, 벽돌조 지상 1층(원래는 2층의 타워가 있던 것을 인천부가 매수하고 헐었다.) 연면적 572.4㎡이며, 부속건물은 기와지붕 목조 1층 연면적 24.3㎡로 여기에는 목욕탕과 화장실이 있었다.

3) 로트게겔은 중국인들이 羅克格으로 부르던 사람으로 중국 靑島의 독일 총독부 건축국 소속 건축기사였다. 그는 칭따오와 상하이의 독일인 구락부(Club Concordia), 칭따오의 江蘇路 基督堂을 설계했으며, 그의 작품은 현재도 칭따오시에 여러 개가 남아있다.(김정동, 아시아의 작은 독일 靑島에서 건축가 로트게겔의 건축을 찾는다, 건축, p.61)
4) 야마쥬(山十)제사회사(製絲會社)가 소유했던 당시에는 '야마쥬' 별장으로 불렸다.
5) 인천각이란 말은 우가키(宇垣一坂) 총독이 1937년 7월 13일 새롭게 단장된 이 건물에 와서 붙인 이름으로 府勢一班(인천부, 1936, p.109)에 기록된 인천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서공원안에 한적하고 단아한 일각에 새로 조성된 작은 정원이 있어 사철의 모든 경치를 보기에 적당한 사계의 정원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누각은 인천의 모든 경치를 비롯해 강화, 부평, 수원의 산봉우리와 모든 섬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실로 장관이므로 이를 인천각이라한다.”
6) 仁川府, 府勢一班, p.110
7) 상계서, p.110
8) 최성연의 개항과 양관역정에 수록된 평면으로 바탕으로 하였으나, 건축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에게 매각되어 호텔 겸 레스토랑으로 사용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미군 장교숙소(BOQ)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건립당시의 평면은 알 수 없다.
9) 인천부사(번역본), p.1428
10) 최성연, 개항과 양관역정(윤문본), p.166

11) 인천부사(번역본), p.1364에는 1890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최성연 선생은 1883년 말에서 1884년 초로 보았다.(최성연, 개항과 양관역정(윤문본), p.82)
12) 인천부사(번역본), p.1364;서울의 경성 부립도서관도 1922년에 설치되었다.(서울특별시, 서울건축사, p.722)
13) 인천시, 인천시사(상권), p.905, 1973
14) 최성연, 개항과 양관역정(윤문본), p.78
15) 인천부사(번역본), p.494p.1364에는 “독일황제 하인리히”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p.1400에는 그 연도를 1898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황성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1899년 6월 6일에 독일친왕이 인천에 왔고, 6월 22일에 우리나라를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황제, 1898년으로 기록된 인천부사의 내용은 오류로 보인다.
16) 인천부사(번역본), p.578

표 2-1. 복원대상 건축물의 원형추정 정도평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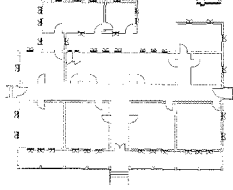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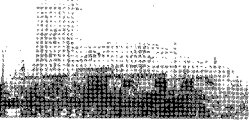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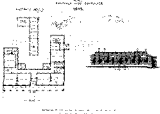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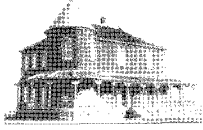

건축물	건축물개요			주요 회년 자료		원형추정 정도 및 시공성
	최초위치	추정규모 (면적제)	양식	도면	사진자료	
제임스 존스턴별장	중구 북성동 2가2번지	4층 1,871㎡	절충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불가 · 외부일부가능 · 3,4층평면불가 · 원위치 가능 · 재료확보불가
세창양행 사택	중구 송학동 1가1번지	1층 (전망탑 제외) 572.4㎡	식민건축 (베란다)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불가 · 외부일부가능 (좌우측면 불가) · 원위치 가능 · 재료확보불가
영국 인천영사관	중구 항동 1가 2번지	단층 515.7㎡	식민건축 (베란다)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불가 · 외부가능 · 원위치 이탈 · 재료확보불가

표 2-2. 복원대상 건축물의 원형추정 정도평가표

건축물	건축물개요			주요 확보 자료		원형추정 정도 및 시공성
	최초위치	추정규모 (연면적)	양식	도면	사진자료	
알렌빌장	남구 송의동 107번지	2층 202.2㎡	식민건축 (베란다)양식			· 내부불가 · 외부 일부가능 · 원위치 이탈 · 재료확보불가
러시아 인천영사관	중구 선린동 56-1번지	2층 추정불가	절충주의	없음		· 내, 외부불가 · 원위치 이탈 · 재료확보불가

외벽에는 회칠을 했으며, 사각기둥, 사각탑 이탈리아 빌라식 아치 베란다가 있다. 건물 정면은 거친돌로 마감된 기단 위에 10개의 사각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9개의 아치를 달아 회랑을 설치했다. 아치 위에는 코니스를 두르고 지붕은 기와로 마감했다. 지붕에는 박공형 도머장을 설치했는데, 정면에는 1개 후면에는 2개를 두어 채광을 고려했다. 회랑 중앙에 설치된 계단을 오르면 중북도와 연결된 주출입구가 있다. 건물 내부의 각 실과 연결된 중북도는 이 건물의 중심 동선을 형성한다. 또한 중북도 양단에는 설치된 부출입구를 통해 바로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건물의 주 공간인 침실과 사무실 및 응접실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외부에는 회랑을 달았다. 이처럼 외부에 회랑(베란다)을 설치하는 건축양식은 유럽인들이 경영하던 동남아지역의 국가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는 뜨거운 태양열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식민지건축양식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동남아와 달리 태양빛을 피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그들이 동남아 지역의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만든 건축양식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러한 베란다건축양식은 세창양행 사택 외에도 영국인천영사관, 알렌빌장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식당이나 부엌 등의 부속공간은 중북도의 후면에 배치하였다. 이처럼 전망이 좋은 곳에 침실이나 응접실 등을 배치하고 외부에 회랑을 설치한 것이나 건물 내부의 각 실과 연결된 중북도와 주출입구를 직접 연결한 평면배치 방식은 영국영사관의 배치방법과 비슷하다. 정확한 시기는 알 길이 없으나, 본 건물의 후면인 북쪽에 목조 1층의 부속 건물을 증축하였다. 건물 전면의 동쪽 모서리에 사각 탑이 있었는데 업무공간으로 추정된 방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곳에 가파른 내부 계단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부립 도서관(1922-1941)으로 개조된 이후에 촬영된 사진에는 이 사각 탑이 없어서 부립 도서관으로 개조되었던 1922년 전후에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¹⁷⁾

17) 이안, 근대기 인천의 외국인 거주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인천

3) 복원가능성

건축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스케일이 없는 도면과 외부 사진 7매로 전체의 외형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내부공간의 형태는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내부공간의 복원은 전혀 불가능하며, 건축물 외형은 일부추정이 가능하나 좌우측면의 형태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외관을 추정하기 어렵다.

4.3 영국 인천영사관

1) 연혁

우리나라와 영국의 공식적인 외교는 1883년 11월 경복궁에서 체결된 ‘한영통상조약’이 시작이다. 영국 인천영사관 건축과 관련된 기록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다. 1884년 첫 조선영사로 부임한 애스톤(William G. Aston)¹⁸⁾은 계물포, 마포, 서울 등지에 영사관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찾도록 지시 받았다. 또한 영국 육군의 건축기사로 영국 상해영사관에 근무하던 크로스맨(W. Crossman, 1830~1901년)도 여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¹⁹⁾ 1884년 건립 이후 영사업무를 계속하다가 1915년에 폐쇄되었고, 1925년까지 영사관과 다른 부지들이 매각되었다. 영국 인천영사관이 폐지된 뒤에는 1915년부터 1931년 5월 1일까지 버넷(Walter George Bennett)가 이 건물을 자신의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영국 영사직을 겸했다. 버넷은 원래 광창양행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일본 나가사키 글로버공원에 있는 글로버하우스에서 태어난 글로버 하나가 그의 부인이다. 이후 만주사변 발발로 1931년 5월 1일 인천부청으로 이관되었으며, 그 후 해방까지의 기록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1946년 8월 14일 시립예술관으로 개관하였으나, 곧바로 휴관하였고 한국전쟁 중(1950년 9월 인천

학연구 5, p.190-191

18) 영국의 외교관인 동시에 언어학자로 1864~1889년에(35년간) 일본과 한국의 영국영사관에서 근무했다.

19) 당시 영국은 중국 상하이(上海)에 1854년 7월부터 1918년 3월까지 ‘영국상해공동조계 공부국(英國上海共同租界 工部局)’을 설치·운영했다.

손장원

상륙작전)에 소실되었다. 이 터에는 1963년 12월 20일에 올림프스 호텔(현, 파라다이스 호텔)이 세워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건축적 특성

영국 인천영사관 건물은 1884년 3월에 소규모의 목조 건물로 출발하여 1897년에 단층 벽돌조 건물을 새로 세웠다. 사진자료에 의하면 처음 세워진 건물은 정상에서 약간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전면에 회랑을 둔 모임지방 건물이었다. 새로 세워진 건물은 전면을 아케이드(arcade)로 장식한 영국식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이다. 내부공간은 영사실, 침실, 객실, 식당,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중정도 있었다. 건물의 규모는 540.5㎡이었다.

1908년에 실시된 조사자료에는 연면적 515.7㎡,²⁰⁾ 정주자 9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건물에는 주출입구와 더불어 두 개의 부출입구가 있었다. 주 출입구에는 두 개의 출입문이 있었으며, 이곳은 복도를 거쳐 중정으로 연결되도록 배치했다. 출입문 좌측에는 2개의 침실을 두었고 우측에는 객실과 식당을 두었다. 편복도의 좌측 끝에는 목욕탕이 달린 침실을 두었고, 우측 끝에는 영사실과 급사실을 두었다. 그런데 내부동선은 그다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식당과 음식물 저장고는 인접하여 배치하였으나, 조리실은 중정 안쪽에 두었기 때문이다. 부 출입구의 위치가 특이하다. 중정과 연결된 부출입구는 바로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배치하여 동선이 자유롭다.

그러나 건물 우측에 설치된 부출입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사실을 거치도록 했다. 이 출입구는 영사의 전용출입구이거나 혹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 인천영사관 사진과 평면도를 비교해 보면 건물전면 우측 모서리에 있던 식당외부와 지붕형태가 약간 다르다. 즉 1900년대 초의 사진에는 식당 외부에는 외랑이 없었지만,²¹⁾ 해방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식당 외부에도 외랑이 보인다. 또한 초창기 사진의 지붕에는 도머창이 없지만 나중에 촬영된 사진의 지붕에는 도머창이 보인다.

3) 복원가능성

용역보고서에는 사진 3매와 스케일이 불분명한 도면 2매를 바탕으로 복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비전문가의 추정에 불과하다. 최근 영국정부의 협조로 건축당시의 도면사본이 입수되었으나, 이 또한 원래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다른 건축물에 비해 건립당시의 도면이 있어 원형에 비교적 가깝게 접근할 수 있으나, 복원은 불가능하다.

20) 최성연, 개항과 양관역정(윤문본), p.85에는 540.5㎡로 기록되어 있다.;이에 대하여 이안은 그의 논문 '근대기 인천의 외국인의 거주공간특성에 관한 연구'(인천학연구 5, p.192)에서 후면에 증축된 것으로 보았다.

21) 이에 대하여 '이안'은 전면만이 외랑형식을 갖춘 영국식민지 외랑건축양식으로 보았다.(근대기 인천의 외국인의 거주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인천학 연구 5, p.192)

4.4 알렌(Horace N. Allen;安連, 1858~1932년)별장

1) 연혁

알렌은 의료선교사로 조선에 부임하여 고종과 친분을 맺었다. 이후 인천에 동서개발회사(이민회사)를 설립한 데슬러(David W. Deshler)의 도움²²⁾으로 주한미국공사가 된 사람이다. 하와이 이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알렌은 인천에 자주 들렀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건물의 건립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알렌이 한국을 떠난 후 이 별장은 이명구(이완용의 아들), 서병의의 별장으로 사용되다가 일본인에게 매각되었다. 1930년 5월 28일자로 이성희에게 이전되었고, 1956년 11월 15일 소실되었다. 소실 전에는 계명학원,²³⁾ 경찰전문학교, 중앙대학교, 무선고등학교 등의 교사로 사용되었다. 1956년 인천전도관이 은행매각에서 구입하여 1956년 12월에 991.7㎡ 규모의 전도관을 완공했다. 1957년에 330.6㎡규모의 2층을 증축하였으며 원래의 대지는 1,322.3㎡ 정도의 규모였다. 한편, 대한제국은 인천에 이궁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반증하는 황성신문 기사가 있다. 또한 최성연도 '고종황제가 알렌별장 옆에 이궁을 세우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 관리병을 두어 머물게 했다'고 기록하였다. 즉 고종은 주한미국공사 알렌의 별장 옆에 이궁을 세울 계획을 갖고 부지를 매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건물은 세워지지 않았다.

2) 건축적 특성

위치는 남구 숭의동 107번지이며, 지상 2층의 본 건물과 단층의 부속건물이 두 채 있었다. 본 건물은 벽돌조로 연면적은 202.2㎡(1층 157.9㎡, 2층 44.3㎡)였으며, 부속 건물은 관리인 주택 1동(연면적 : 30.6㎡), 창고 1동(연면적 : 29.8㎡) 등이 있었다. 구조방식은 석조로 기단을 조성하고 그 위에 벽돌을 싸아 올린 조적식 건축물이다. 1층 외부에는 석조기단 위에 베란다를 설치하였으며, 그 상부에는 차양을 달았다. 진입방식은 계단을 통해 베란다 부분으로 오른 뒤 주출입구를 통하도록 했으며, 내부공간은 주출입구에 접한 복도와 연결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계단실을 건물내부 가장자리에 두어 출입구에서 복도를 완전히 통과해야 다다를 수 있도록 하여 동선처리는 그리 자연스럽지 못하다.

건물의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직사각형 평면을 주축으로 좌측 하단 모서리에 원형을 배치한 형태이다. 원형으로 구성된 공간의 용도는 정확하지 않으나, 전망공간 등

22) 당시 미국 공화당에서 상당한 실력자였던 내쉬(G. K. Nash ; 데슬러의 계부)의 지원에 힘입어 주한미국공사관 공의(公醫)에서 1890년 참관관으로 임명되고 이어 부 총영사, 공사 겸 총영사를 역임하게 된다.(오인환·공정자, '구한말 한인 하와이 이민', pp.43-46 참조)

23) 이순희가 1936년 불우어린이 3명으로 설립한 학교이다. 1938년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알렌별장(연면적 200평, 대지면적 780평)을 인수하여 확장했으며 해방 당시에는 700명 정도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다. 해방 후 학생들을 신흥, 축현초등학교로 전학시키고 학교 문을 닫았다.(신태범, 인천 한 세기, p.200)

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부에는 고깔모양의 지붕을 설치했다.

3) 복원가능성

현재 확보된 자료는 정면 사진 2매, 건물 뒷면이 묘사된 그림 1점, 스케일이 불확실한 1, 2층 평면도 각 1매이다. 이를 근거로 건물의 외관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으므로 이 건물 또한 원형복원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4.5 러시아 인천영사관

1) 연혁

선린동 56-1번지에 있었던 건물로 '제물포 러시아 부영사관'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건물은 사바찐이 설계한 것이다. 러시아 영사관은 당초 서울에 있었는데, 1902년 10월 인천으로 이전되었다.

이전 당시에는 청사가 없어서 성공회 성 루카병원을 사용하다가 청사를 신축하여 다시 이전한 것이다. 이 건물의 정확한 완공시점은 알기 어렵지만, 대략 1903년경으로 추정된다. 러일전쟁에서 패한 후 인천주재 러시아 영사는 1904년 2월 12일 본국으로 돌아갔다. 동정철도출장소도 이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러일전쟁 후에는 일본 육군병참부, 운수부가 사용하기도 했다. 1912년 4월 1일에 체신국 인천출장소로 사용되었다. 체신국 인천출장소는 세관에서 취급하던 해사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한 곳으로 1915년 6월 1일에는 체신국 인천해사출장소로 개칭하였다. 해방 후에는 미군철도수송대 사무소로 이용되었고, 1959년까지는 우리나라 해군경비부에서 사용했던 기록이 있으나, 이후의 용도에 대한 기록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다. 1974년 상가를 건축하기 위해 철거되었으며, 현재는 공터로 방치되어 있다.

2) 건축적 특성

건물 정면의 중앙부를 돌출시켜 1층에는 포치를 두고 2층에는 발코니를 설치했다. 지붕 상부는 크레스팅으로 장식하고, 건물 정면과 좌측면의 중앙부 지붕에는 별도의 박공지붕을 설치했다. 박공부에는 그가 즐겨 사용한 페디먼트로 장식했다.

사진자료에 따르면 두 개의 굴뚝이 나타나며 내부에 벽난로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을 설계할 당시 사바찐은 대한제국 관리를 사임하고 인천에 거주하고 있었다. 즉 1899년 11월 동정해상기선회사 인천대리점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러시아 서울공사관의 인천과견원 역할도 하고 있었다.

한편, 그는 페디먼트 장식을 상당히 선호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장식은 러시아 서울영사관, 제물포구락부, 러시아 인천영사관 등에 적용되었다. 특히, 러시아 인천영사관 정면 2층의 중앙부는 그가 설계한 제물포구락부의 2층 중앙부와 유사한 점이 많다.

3) 복원가능성

건축물의 외관이 나타나는 사진 3매가 전부로 스케일이 불분명한 도면조차 확보되지 못한 건축물이다. 즉 단순한 건축물에 비해 자료가 가장 열악하므로 이 건축물의 복원을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 접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보아야 한다.

5. 결론

건축물은 당대의 문화적 특성과 지역성이 담긴 문화적 상징물로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특성과 생성배경의 규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원이 거론되고 있는 인천의 근대건축물을 살펴보았다. 복원은 단지 사진 몇 매와 스케일조차 불분명한 도면으로 가능한 작업이 아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만국공원 창조적 복원 사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다. 또한 인천에 세워진 근대건축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는 개별건축물이 아닌 이들이 모여 형성된 장소성이다. 장소적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일 건축물이 아닌 군집체로서의 건축적 특성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건축은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장소가 갖는 경험과 결합한다. 단순히 대지에 맞도록 짓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결합함으로써 물리적 한계를 넘어 문화적 가치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쟁과 도시화 속에서 많은 건축물이 사라지고 훼손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건축물이 남아 과거의 역사를 반증하고 있다.

이 시대의 문화적 상징성을 담기 어렵고, 예술성도 떨어지는 과거의 건축을 억지로 만들기보다는 남아있는 것들을 보존하여 장소적 가치를 높이는 일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1. 인천학연구원, 각국공원(현 자유공원)창조적 복원사업 타당성 검토, 인천학연구원, 2005
2. 월간건축인 포아, poar, vol.125, 2006. 9
3. 인천부, 인천부사, 1933
4. 인천부, 부세일반, 1936
5. 인천시, 인천시사(상권), 1973
6. 인천직할시, 인천시사(상권), 1993
7. 손장원, 다시 쓰는 인천의 근대건축, 간향미디어, 2006
8. 최성연, 개항과 양관역정, 경기문화사, 1959
9. 이안, 근대기인천의 외국인의 거주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인천학연구 5, 2006
10. 신태범, 인천 한 세기, 한송, 1996
11. 최선주, 일본의 근대건축물 보전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12. 오인환·공정자, 구한말 한인 하와이어민, 인하대학교출

손장원

관부, 2004

13. 김정동, 아시아의 작은 독일 靑島에서 건축가 로즈케젤의 건축을 찾는다, 건축 v.45 n.7, 대한건축학회, 2001

(접수: 2007. 6)